

생기 잃는 자연사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려면

이지민 기자 delicado@kn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1978년 개관해 9만여 점의 표본을 갖추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자연보존과 생명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설립되었다. 표본 규모는 전국 대학 박물관 중 최상위급이다. 자연사박물관은 경희학원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람객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른 박물관을 찾아 먼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기동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평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관람객 감소가 주된 이유다. 2016년 9347명이었던 외부 관람객은 2019년 7863명으로 줄었다. 다행히 교내 관람객 수는 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을 15년 넘게 관리해온 안철범 학예사는 “옛날에는 학교 학생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2016년부터 사전준비를 시작해 2017년부터 필수 교과인 ‘벽빵에서 문명까지’ 수업 과제에 박물관 관람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저도 과제를 위한 일회성 방문이 대부분이다. 잠재력을 갖춘 자연사박물관이 생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자연사박물관 측은 관람객 감소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속사정을 내비쳤다. 안 학예사는 “공간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현재 박물관 정직원은 학예사와 기능직 직원 각각 1명이 전부다. 계약직 직원도 1명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7년까지 2명으로 유지되던 학예사 정원마저 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2019년 새 수장고에 보관될 표본 9만 점 가량



9만여 점의 표본을 갖춘 자연사박물관의 내부 모습이다.

(사진=이지민 기자)

“
박물관을 무언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

을 직원 2명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자연사박물관 측은 2018년 초부터 주말 운영을 중지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관람은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주말에 방문하는 외부 관람객 수가 줄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 기획 등의 제안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안 학예사는 “주말에는 박물관 문을 열지 않아 일반 관람객들이 오지 않고 있다”며 “대체 방안으로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야간 개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학예사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는 외부 관람객을 모집할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박물관 내부에서는 방과 후에도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중”이라면서도 “이 역시 인력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연사박물관에 학생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인력 부족 문제

를 해결하는 동시에 관람객 수를 활성화하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입을 모았다.

문화관광컨텐츠학 소속인 A 교수는 “자연사박물관은 경희학원 내 여러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각 학교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학예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봉사 활동 참여 혹은 생물학과 등 관련 학과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돋고 전공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학생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덧붙여 자연사박물관이 이처럼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밝혔다.

실제 서울대 측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봉사자를 모집, 미술관 전시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관련 분야에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덤이다.

실제 자연사박물관도 학생과의 연

계 지점을 높이는 데 고민이 많다. 지난달에는 ‘학부생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된 서포터즈들은 학예사의 교육을 받아 직접 표본을 활용하고, 박물관의 전시와 홍보를 돋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세 가지 부서로 나누어 진행된다. 홍보, 표본, 전시이다. 장학금도 지급된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백서림(생물학 2020) 씨는 “6층까지 넓은 전시실이 있고 다양하고 희귀한 표본들도 있어 많은 가능성이 잠재된 공간이라 생각한다”며 “전공 분야와 관심사가 일치해 서포터즈로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현재는 다섯 명의 학생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은 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안 학예사는 “국제캠퍼스 학생 한 명이 장학금과 관련 없이 박물관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해왔다”며 “그 학생이 전시, 해설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학생 참여 공간을 늘리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안 학예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2층 전시실에 스터디 공간 등을 조성했다. 2층 전시실엔 아예 테이블과 콘센트,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다. 그는 “공부하는 공간과 같이 편하게 박물관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박물관을 무언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학예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찾아와 많이 물어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박물관이든 한번만 보고 끝내면 아쉽다. 여러 번 방문해도 언제든지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물관이 학생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I 유형(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20년 1월~5월 중 학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 제외)상태인 학부생

※ 신청일 기준, 재취업 및 재창업한 경우 제외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자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교내 경희목록장학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 서 신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지원(9~10구간 포함)

※ 단,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4. 지원기간 : 2020-1학기 (7월 중순 이후 장학금 지급 예정)

※ 실직·폐업 발생 기간별 지급 시기 : [1학기] 1~5월 / [2학기] 6~10월

※ 한 학생에게 한 학기만 지원 가능(2020-1학기 지원자는 2020-2학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5. 지원방법

• 학생명의 계좌이체 지급

• 재단 내/외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 처리

6. 장학금 지급 제외자

• 해당학기 미등록 휴학자

• 출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횟수) 초과자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0 후기 추가모집)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0.6.15(월) 10:00~6.26(금) 17:00	• 접수처 : www.uwapply.com
고사장 인내	2020. 07. 09(목) 15:00~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http://edu.knu.ac.kr)에 광지
고 대접	2020. 07. 11(토) 10:00~	•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견제
시 비고	• 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청운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합격자 발표	2020. 07. 18(목) 10:00	
합격자 등록	2020. 07. 20(금) 10:00 ~ 22(수) 16:00	• 세부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내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